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르바이트 경험의 조절변수

임덕순*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은 대학생의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충남지역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를 교과만족, 인식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과 취업스트레스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아르바이트경험을 조절변수로 하여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관계만족($\beta = -.141$)과 인식만족($\beta = -.28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만족($\beta = -.006$)과 일반만족($\beta = -.00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과 인식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인식만족만 취업스트레스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은 통계적으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관계만족과 인식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고,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라 경험이 있는 경우에 교과만족과 인식만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교과만족과 인식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무적, 학술적인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 임덕순, 단국대학교 부교수, yim11@kakao.com

I. 서 론

1.1 연구목적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합격이나 가능한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변은숙·윤숙자·김경희, 2014).

즉, 대학생의 대부분은 단편적인 입시교육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기 상태로 대학생 시기를 맞이한다(장신애, 2016). 또한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 취업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다양한 요인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취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우정·최바울, 2020). 한편 개인의 진로 직업 선택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가치관, 능력 발휘의 기회 등 생애 진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대학생 시기는 진로 결정 및 실행에 있어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황정희·임석빈, 2015).

2019년 이후 코로나-19의 전파로 전 세계적 경제난과 더불어 최근 취업의 어려움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박윤미·전애은, 2021). 더욱이 취업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전하게 발달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과 같은 현상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한규철·이현심, 2019).

또한, 물가인상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용돈 및 생활비 마련 등으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관우·남진열, 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취업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한 기존 연구가 소수 존재했으나(김정아·김인아, 2018), 아르바이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조절효과로 아르바이트를 고려한 연구로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관계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정백·안선희·오윤자, 2021)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하고, 하고 있다는 현실과 아르바이트의 직종이 최종 직업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공만족도를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김민영, 2022). 자신이 현재의 전공이 자신의 현재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

에 대한 대부분의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고 지속적인 학습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학과 수업 수강결정 미래에 학생 모집등에 영향을 미친다(Sincaire, 2014). 반면 과목에서 차이가 전공만족도와 수업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하다(김상화, 2023).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은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이다. 교과만족은 전공의 교과과정 내용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며, 관계만족은 교수와 학생(제자) 등 구성체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일반만족은 전공과목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인식만족은 전공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을 의미한다(이진희, 2009; 송유진, 1995; 하혜숙, 2000).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이연숙, 2019).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만족과 주변인들의 평가 정도를 나타내며, 학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면 성적 저조, 대학생할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와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미라·박분희, 2014). 박윤미·양지인(2019)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전공 선택 시 자기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전공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취업스트레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으며,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전공만족도에 의한다고 하였다(김경남·강은희, 2020; 전현숙·이미라, 2016).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중 교수지지와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희·정갑연·장용운, 2016). 또한, 대학 진로 교육 만족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최영준, 2022).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과만족도 제고 방안이 하며, 이에 따라 학교 차원의 제도 개선 및 학생 개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의 노력이 수반 되어져야 한다(박윤미·양지인, 2019). 예비유아 교사의 취업스트레스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희·양진희, 2013). 유은영·양유정(2013)은 학과만족도가 진로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반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정백·안선희·오윤자, 2021).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우울,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는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각각 유의한 부적,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정·유하나, 2018). 또한 이공계 전공집단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가 전공만족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이숙자, 2020).

취업스트레스는 신입생 때부터 진로에 관한 고민과 취업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고, 졸업예정 시기가 다가오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욱·조윤희, 2011).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종운·지연옥, 2016).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대학 진학시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적성보다는 치열한 취업경쟁에 생존하기 위해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다라도 졸업 후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박미정·유하나, 2018). 대학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과 변화의 속도,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취업스트레스는 그들이 당면한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이인숙, 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남·강은희(202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희정·서민숙·박다혜(202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높았고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까지 연계교육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앞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1 : 교육만족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2 : 관계만족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3 : 일반만족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4 : 인식만족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2.2 아르바이트 경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모두 취업난을 겪는다. 특히 등록금 인상같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다른 대학생들은 학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도 업무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Ralph, 2010).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학 등록금, 생활비, 사회적 참여를 위한 활동비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심인옥·송전우(2016)에 의하면 간호대학생 91.7%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는데 낮은 경제수준, 아르바이트로 조사되었다(Lee, 2020).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인식이 변화하였다. 대학생들이 소비자로서 역할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서비스업의 발달, 이와 같은 제도들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의 여름철 아르바이트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1위가 사무직, 2위가 편의점 및 매장 관리, 3위 가외식 설빙아르바이트로 서비스업 선호현상이 나왔다(잡코리아, 2023).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유형 중에서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정신건강의 위험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면서(김경숙, 2022), 대학생들이 특별히 접근하기 쉬운 아르바이트가 서비스업이라는 것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김정아·김인아(2018)의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보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경험 중 근무환경이 고객 불량행동으로 부터 아르바이트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승하, 2018), 우태희·엄기수(2021)는 시간제 대학생의 감정노동 특성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진로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하는 연구로 전문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진로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김정아·김인아, 2018).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 교육만족은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2 : 관계만족은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3 : 일반만족은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4 : 인식만족은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요인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었다. 표본집단은 충남권 대학교 재학생이었다. 설문은 ‘네이버 폼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해 URL 온라인 설문지 형태로 진행하였다. 2023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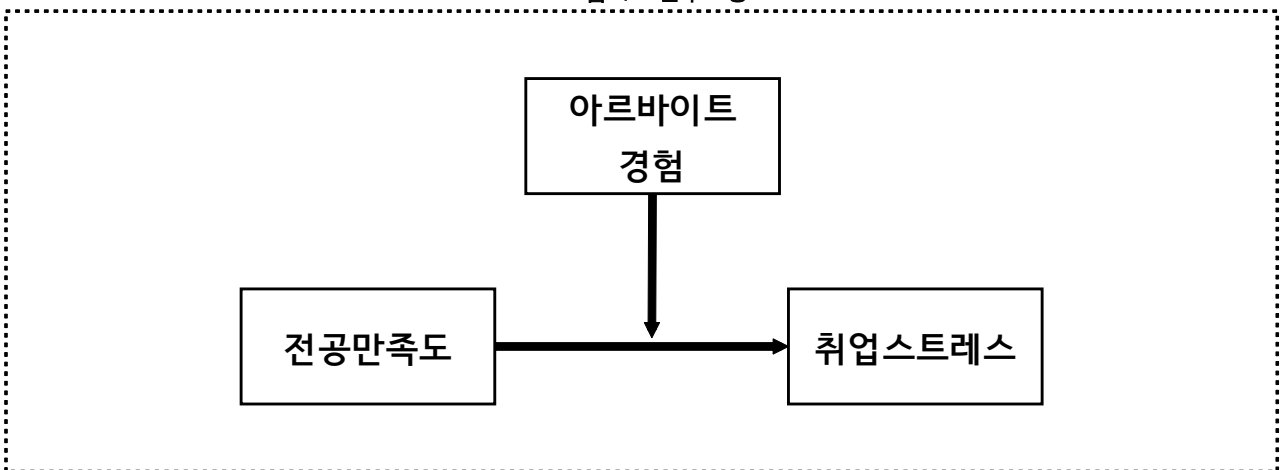
이 가능했으며, 소요시간은 평균 10-15분이었다. 총 560부를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으로 부적절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한 54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들을 SPSS v2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IV. 분석 결과

4.1 측정도구

4.1.1 전공만족도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진희(2009), 송유진(1995), 하혜숙(2000)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이선영(2009)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이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를 4개의 하위변수로 측정하여 연구 변인 간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이선영, 2009).

이선영(2009)의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988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의 α 값은 .95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의 α 값은 교과만족이 .934, 인식만족이 .897, 일반만족이 .931, 관계만족이 .836으로 나타났다.

4.1.2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은 유무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경험이 있는 경우 ‘있음’, 없는 경우 ‘없음’으로 설문하였다.

4.1.3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격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 스트레스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두려운 생각이 든다’, ‘나는 취업이 안 됐을 경우를 자주 생각해 본다’, ‘나는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들을 때면 취업에 대하여 걱정이 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944로 나타났다.

4.2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 표본 특성에서 성별을 보면 남자 228명과 여자 316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다. 나이는 20-26세 사이에 85.1%가 있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것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재학년으로 보면 2-3학년이 79%인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은 1.3%이고 그 외 학년(졸업유예등)은 0.4%이므로 표에서 제외하였다.

대학교 성적은 조금 나쁨과 조금 좋음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87.5%가 보통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및 취업 경험은 유경험자가 74.1%이고 무경험자가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544)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28	41.9
	여	316	58.1
나이	19	77	14.2
	20	120	22.1
	21	91	16.7
	22	95	17.5
	23	80	14.7
	24	41	7.5
	25	25	4.6
	26	11	2.0
	27	4	0.7
월소득 (단위 : 만 원)	100 미만	493	90.6
	100이상 ~ 200미만	41	7.5
	200이상 ~ 300미만	5	0.9
	300이상 ~ 400미만	4	0.7
	400이상 ~ 500미만	1	0.2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재 학학년	2학년	201	36.9
	3학년	229	42.1
	4학년	105	19.3
대학교 성적 수준	매우 나쁨	13	2.4
	조금 나쁨	154	28.3
	조금 좋음	322	59.2
	매우 좋음	55	10.1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403	74.1
	없음	141	25.9

4.3 신뢰도 및 타당성분석

<표 2> 교과만족도의 요인분석결과(N=544)

문항	1	2	3	4
교과만족2	.805			
교과만족3	.790			
교과만족1	.785			
교과만족4	.740			
교과만족6	.728			
교과만족5	.672			
인식만족20		.833		
인식만족18		.818		
인식만족19		.706		
인식만족17		.698		
인식만족21		.684		
인식만족22		.608		
일반만족14			.794	
일반만족12			.783	
일반만족16			.674	
일반만족15			.660	
일반만족13			.589	
관계만족10				.785
관계만족7				.779
관계만족9				.742
관계만족8				.643
관계만족11				.417
고유값	11.811	2.030	1.177	.998
설명분산	54.003	9.225	5.350	4.535
누적분산	54.003	63.228	68.578	73.113

4.4 가설검증

4.4.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수와의 관계에서 교과만족은 -.468, 관계만족은 -.379, 일반만족은 -.405, 인식만족은 -.428, 관계만족을 제외하고 0.4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만족도는 -.379이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544)

	1	1-1	1-2	1-3	1-4	2
1. 전공만족도	-					
1-1. 교과만족	.871**	-				
1-2. 관계만족	.822**	.706**	-			
1-3. 일반만족	.916**	.693**	.650**	-		
1-4. 인식만족	.854**	.600**	.552**	.801**	-	
2. 취업스트레스	-.468**	-.379**	-.405**	-.428**	-.470**	-
M	79.175	20.947	18.294	21.884	18.050	45.169
SD	14.696	4.586	3.518	4.748	4.055	15.117
왜도	-.156	-.145	-.217	-.263	-.285	.248
첨도	1.067	.570	.539	.324	.383	-.552

4.4.2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다중회귀분석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회귀분석결과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수 중 관계만족과 인식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라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교과 만족과 일반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으로 기각되었다.

<표 4>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544)

독립변인	종속변인 : 취업스트레스		
	B	β	t
(constant)	76.139		22.406***
교과만족	-.020	-.006	-.099
관계만족	-.607	-.141	-2.390**
일반만족	-.010	-.003	-.040
인식만족	-1.066	-.286	-4.292***
R^2			.252
Adjusted R^2			.245

4.4.3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절 효과

아르바이트 및 취업 경험의 조절효과를 보려면 교과만족도와 인식만족도와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교과만족이란 전공의 교과(과정)내용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므로 교과만족이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한 경험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만족은 전공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전공의 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식만족도와 관계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이 되고, 관계만족도와 일반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으로 기각한다.

<표 5>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하위요인별 조절효과(N=544)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Durbin-Watson
						R제곱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관계만족	1	.279	.078	.076	14.528	.078	45.881	1	542	.000	1.985
	2	.282	.080	.076	14.528	.002	.964	1	541	.326	
	3	.325	.106	.098	14.360	.026	5.254	3	540	.001	
인식만족	1	.370	.137	.135	14.057	.137	85.892	1	542	.000	2.019
	2	.375	.141	.137	14.040	.004	2.359	1	541	.125	
	3	.386	.149	.144	13.983	.008	5.365	1	540	.021	
일반만족	1	.328	.108	.106	14.293	.108	65.347	1	542	.000	.108
	2	.332	.110	.107	14.285	.003	1.632	1	541	.202	
	3	.333	.111	.106	14.293	.001	.400	1	540	.528	
교과만족	1	.305	.093	.091	14.40914	.093	55.652	1	542	.000	1.993
	2	.307	.095	.091	14.41107	.001	.854	1	541	.356	
	3	.313	.098	.093	14.39797	.003	1.985	1	540	.159	

4.4.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대한 조절 효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 인식만족만이 취업 스트레스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만족도, 관계만족도, 인식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 하위요인별 조절효과(N=544)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Durbin-Watson
						R제곱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관계만족	1	.305a	.093	.091	14.409	.093	55.652	1	542	.000	1.993
	2	.307b	.095	.091	14.411	.001	.854	1	541	.356	
	3	.313c	.098	.093	14.397	.003	1.985	3	540	.159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변화량					Durbin-Watson
						R제곱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인식만족	1	.370a	.137	.135	14.057	.137	85.892	1	542	.000	2.019
	2	.375b	.141	.137	14.040	.004	2.359	1	541	.125	
	3	.386c	.149	.144	13.983	.008	5.365	1	540	.021	
일반만족	1	.328a	.108	.106	14.293	.108	65.347	1	542	.000	1.987
	2	.332b	.110	.107	14.285	.003	1.632	1	541	.202	
	3	.333c	.111	.106	14.293	.001	.400	1	540	.528	
교과만족	1	.279a	.078	.076	14.528	.078	45.881	1	542	.000	1.993
	2	.281b	.079	.076	14.532	.001	.701	1	541	.403	
	3	.283c	.080	.075	14.537	.001	.653	1	540	.419	

V. 결론

코로나 팬더믹이 해제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과 미 중 무역분쟁이 우리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은 관계만족도, 인식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 학과내 인간관계(교수, 교우)와 학과의 사회적 인식이 좋으면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및 취업 경험 조절 효과에서 교과만족도와 인식만족도가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교과만족이란 전공의 교과(과정)내용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므로 교과만족이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한 경험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만족은 전공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전공의 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인식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과 미경험인 경우에도 인식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학과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인식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전공에 따라 취업스트레스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 의학, 보건의학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전공은 취업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김민영, 2022), 후속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공학, 의료 등 전공계열에 따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고관우·남진열(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4(2), 149-168.
- 김경남·강은희(2020).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3), 80-88.
- 김경숙(2022).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10), 1845-1854.
- 김경욱·조윤희(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 김민영(2022).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10), 294-302.
- 김상화(2023). 창업학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학회지**, 7(21-33).
- 김정아·김인아(2018). 전문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4), 463-471.
- 김종운·지연옥(2016).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313-1334.
- 김희정·서민숙·박다혜(2021). 집단따돌림, 임상실습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115-123.
- 박미정·유하나(2018).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매개효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1), 1-144.
- 박우정·최바울(202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중도탈락의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차이. **한국청소년학회**, 183-209.
- 박윤미·양지인(2019).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9(2), 55-77.
- 박윤미·전애은(2021). 코로나-19상황에서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항공서비스 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연구학회**, 111-123.
- 변은숙·윤숙자·김경희(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3(3), 146-153.
- 송유진(1995). **무용(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태희·엄기수(2021).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감정노동 특성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공학학회지**, 26(4), 43-65.
- 유은영·양유정(20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557-568.
- 이선영(200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라·박분희(201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4), 77-93.
- 이수희·정갑연·장용운(2016). 미용관련학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과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상업교육연구**, 30(3), 21-47.
- 이숙자(2020). 대학생이 인식한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5), 1973-1986.
- 이승하(2018). **외식산업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경험이 스트레스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연숙(2019).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영향관계. **관광연구**, 34(4), 167-184.
- 이인숙(2011). 간호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자존감, 우울 및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5), 2487-2500.
- 이정희(2020).
- 이진희(2009). 무용수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재화가 대상화된 신체의식, 사회적 체형불안 및 섭식장애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205-222.
- 장신애(2016).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성취압력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잡코리아(2023.06.16.). *알바몬 조사, 대학생 87.3%, '여름방학에 알바 할 것'*. 잡코리아 취업뉴스, Retrieved(검색일자 2023.10.01.) from https://m.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21174&schCtgr=120001&Tip_To p=1.
- 전현숙·이미라(2016). 간호·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산학 시술 학 회**, 17(21), 643-651.
- 정백·안선희·오윤자(202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효과. **취업 지노학회**, 11(1), 159-181.
- 정영희·양진희(2013).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229-248.
- 최영준(2022). 대학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영향요인 분석 연구: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6(3), 161-177.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과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규철·이현심(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 리학회**, 31(3), 967-995.
- 황정희·임석빈(2015).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진로교육연구**, 28(2), 87-105.
- Lee, J. H.(2020). *Effect of University Student Part-time Work Experience on University Life*.
- Ralph, H.(2010). The work-study relationship: experiences of full-time university students undertaking part-time employment. **Journal of Education an Work**, 23(5).
- Sincaire, J. K.(2014). An Empirical Investgation Student with College Courc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Jo urnal**, 22.

[abstract]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Focusing on the control variables of part-time work experience

Duksoon Yim*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following the global coronavirus pandemic has amplified college students' stress regarding emplo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time work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544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the Chungnam region. Major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subject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impact of each variable on employment stress. Using part-time work experience as a moderating variable, we studied whether it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a = -.141$) and cognitive satisfaction ($\beta = -.286$), which are sub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stress. Subject satisfaction ($\beta = -.006$) and general satisfaction ($\beta = -.003$) were found to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n the case of those with part-time work experience, subject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satisfaction, which are sub-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controlling effect on employment stress. Lastly, in cases where there was no part-time work experience, only perceived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employment stress. However, the remaining sub-factors, subject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 moderating effect.

As a result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this study revealed that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perception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nd that subject satisfaction and perception satisfaction had a moderating effec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re was part-time work experience. This presented a new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 that part-time work experi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subject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KeyWord: College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 Duk-Soon Yim, Dankook University, yim11@kakao.com